

제 1,329호 신문은 8월 8일에 발행합니다. ※ 하계휴가로 8월 1일자 신문은 발행하지 않습니다.

우리 동네 **맛**플
이 가게 어때?

샵트레인

달서구 조암남로 157 / 문의 ☎053-639-8292

‘기차 타고 먹는~’ 추억의 옛날 통닭

옛날 통닭과 바삭바삭한 뽕집이 먹고 싶어 방문한 우리 동네 맛집 ‘샵트레인’에 방문했다.

멀리서부터 누가 봐도 “샵트레인이다!”라는 존재감이 넘치는 외관!

어릴 때 기차여행 하면 기차 안에서 먹던 즐거움을 느끼며 추억여행하는 즐거운 시간들 보냈다.

자리 옆 화면엔 기차에서 창문 밖을 구경하는 듯 영상이 틀려있고, 선반 캐리어 디테일까지 하나하나 신경 쓴 부분들이 많이 보였다.

아이와 함께 가족끼리 온 손님들도 많았고, 너도나도 할 거 없이 다 같이 그때 그 시절 얘기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들리면서 그 시절 향수 속으로 빠져들었다.



메뉴 구분이 역 이름으로 되어있어 흥미로웠다. 메뉴를 고르면 키오스크로 간편히 주문도 가능했다.

메뉴는 동대구역, 간이역, 안동역으로 나뉘면서 다양한 음식들이 있다. 옛날 통닭, 순살치킨, 닭뽕집, 골뱅이무침 & 소면, 국물 떡볶이, 주전자 부산어묵 등이 있고, 대표메뉴인 옛날 통닭을 7,900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.

인기 메뉴로는 우동, 마늘간장순살통닭, 떡볶이, 닭뽕집 튀김 등이 있고, 추억의 메뉴인 옛날 통닭과 순살 치킨 뿌링클, 뽕집, 매콤한 골

뱅이무침을 주문하니 기본 안주로 마약 팝콘과 통닭이나 뽕집에 찍어 먹을 수 있는 머스타드소스, 특제소스, 소금이 나왔다.

메인메뉴인 옛날 통닭은 껍질이 바삭바삭하고 살도 통통하고 엄청 부드럽다. 뽕집은 아삭아삭하면서도 쫄깃쫄깃해 같이 나온 마늘이 들어간 소스에 찍어 먹으면 좀 더 매콤하게 먹을 수 있다.

먹다가 살짝 느끼해질 때쯤 매콤한 골뱅이무침과 시원한 맥주까지 마시니 한여름 더위가 물러가는 느낌이였다.

순살치킨 뿌링클은 입에 넣자마자 과자같이 바삭하고 짹짹하니 고소해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는 메뉴다.

중간중간 사장님과 직원들이 필요한 거 없는지 살펴봐 주고, 바쁜 와중에도 한분 한분 세심하고 친절하게 봐줬다.

비가 오는 날 우동에 한잔, 더운 날 치킨에 시원한 생맥주가 먹고 싶다면 가볍게 동네에서 한잔할 수 있는 ‘샵트레인’을 꼭 추천 드리고 싶다.

※영업시간: 토·일 17:30~02:00
평일 17:30~01:00

신세란 객원기자

www.prsinmun.co.kr

고객을 내 가게로 올 수 있게! 5만원이면 할수있다!!

경제적인 비용으로, 광고 효과는 더 크게!
늘어나는 고객, 커져가는 인지도 푸른신문에서 이뤄드리겠습니다.

광고문의 053-572-6000